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렘 강해 설교 31)

성경말씀: 렘36:1-32

지난 주 레갑 사람들 이야기: 대언자는 레갑 사람들을 주의 집의 여러 방들 가운데 하나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함, 그들이 안 마심, 이유,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다 (6). 확신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내가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고 하지 아니 하였느냐?(13-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한 재앙을 내리겠다(17). 예레미야의 축복: 너희가 조상의 명령을 지켰으니 자손이 무궁하겠다(18).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36장 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모든 단어들의 보존, 이런 책은 전무후무하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가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제사장, 대언자, 통치자, 백성의 합작품), 새 언약, 이스라엘의 회복 등에 대해 알 수가 없다. 히브리서 불가능,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모든 단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렘36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거부하는 것, 보존하는 것을 잘 보여 준다.

1. 성경의 계시와 영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다.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계시를 단어들로 적는 과정을 영감이라고 한다. 딤후3:16

렘36:1-2, 두루마리 책에 모든 말(단어)을 기록하라. 정결한 양피지, 끝에 나무를 대고 둘둘 말게 함. 지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46-51장은 이집트, 바빌론 등 예언 이것은 BC 606년경에 바빌론이 이집트를 누르고 승리한 때에 주어짐, 그 전에 예레미야에게 20여 년 동안 주신 대언들을 모두 기록하라고 하심. 1-25장과 46-51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들(단어들)은 그의 단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들이다. 벧후1:20-21 그 두루마리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단어들이라 생명을 소유한다. 히4:12-13

성경 기록의 목적(3): 자기 백성을 죄와 불법에서 구하시려는 것

예레미야의 경고는 단순히 무서움을 자아내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다(7).

성경에 하나님의 경고는 항상 그분의 은혜에 기반을 둔다. 겔33:11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었다(4). 말씀이 계시된다. 기억된다. 그리고 기록된다. 바룩은 단순히 서기관 노릇만 하지 않고 2번이나 말씀을 선포한다(5-6).

예레미야는 간헐고 바빌론 사람들로 인해 금식이 선포되었다.

2.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바룩은 대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100% 하였다(8). 청지기의 신실함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극명히 달랐다. 대부분의 백성은 금식을 수행하느라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미가야만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의 킹제임스 성경 이슈와 비슷함 미가야는 그 책에서 나온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다(11).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성경 이슈도 마찬가지, 13구절 삭제 등 전체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는 왕의 통치자들에게 그 말씀들을 알려주었다(13). 이들은 미가야의 보고에 만족하지 않고

바룩을 데려다가 직접 듣겠다고 함(15). 이들 역시 미가야처럼 말씀을 신중하게 들었다.

우리는 조직적으로 성경을 다 읽어야 한다. 앞으로는 주일 오전 예배에서 성경을 조직적으로 읽으려고 함. 교회 학교 교육에서도 성경을 조직적으로 읽으려고 함. 금요 모임도 마찬가지.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16).

단순히 읽는 것과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나의 무기력함, 죄성, 하나님의 광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등이 드러나면서 감격과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이에 이들은 왕에게 이것을 알려야겠다고 말함(16). 이들은 바룩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그대로 왕에게

고하려고 함(36:13; 36:16). 그런데 보고할 말씀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것이다.
현대 복음 선포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선하심만 강조, 죄, 지옥, 심판은 거의 다루지 않음. 이들과처럼 모든 것을 전달해야 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자세히 알려야 한다.

가정교육의 중요성: 미가야는 사반의 손자(11). 그는 요시아 왕 당시 국무 장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 책이 발견되매 사반이 왕 앞에서 반복해서 읽음(왕하22). 왕을 비롯해서 옷을 찢음, 유다의 개혁이 일어남,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함.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유다의 통치자들의 손에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줌(렘26:24).

미가야의 사촌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말리야가 예루살렘 함락 시 예레미야를 구해 줌(39:14). 총독 성경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아는 부모를 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품성 교육

3.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여호야김 왕은 이들과 정반대의 일을 하였다. 그는 듣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여호야김은 예측 불허의 인간, 그래서 이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김(36:19-20).

여호야김이 그 책을 찢어서 겨울 화로에 집어넣는 것은 성경 보존을 막으려는 마귀의 극적인 시도(23) 중세 로마 시대, 천주교회는 성경을 금서 목록에 올리고 아마도 읽지 못하게 하였다. 화형시킴 위클리프(1384년, 1415년, 29년), 에라스무스, 틴테일, 루터 등을 통해 일반인의 언어로 보존됨.

여호야김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기를 원치 않았다(36:29). “괜찮아질 거야” 태도 태워버리면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엔진 오일, 냉각수 경고

싸인이 들어오면 고쳐야지 대쉬 보드의 그 경고 싸인을 없앤다고 차가 수리되는 것은 아니다. 왕과 또 왕과 함께 한 그의 신하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다(36:24).

세 명의 신하가 그에게 달려가 막아도 막무가내였다(25-26). 오히려 예레미야와 바룩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함

그의 아버지 요시아는 율법을 발견하고는 회개의 표시로 책이 아니라 옷을 찢었다(왕하22:11).

성경에 대한 태도: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듣거나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성경을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다.”

지금도 여호야김의 후예들이 많다. 신학교 교수들, 성서공회, 문서 비평, 목사들, 성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김

확실하게 정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알게 되면 그와 동일하게 거기에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에덴동산에서부터 말씀에 가감을 하고 추측을 해서 번개시키려고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들은 보존하실 능력이 있다(마4:4).

그래서 원본의 폐기 이후에 또 다시 두루마리에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거기에 더 더하게 하신다 (36:27-28, 32). 하나님은 원본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원본이 가치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의 단어들을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손 안에 2600년 전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신 단어들이 그대로 있다. 믿음이다. 시12:6-7

예레미야가 둘째 판에 더한 말들에는 여호야김에 대한 저주가 들어 있다(30-31).

불쏘시개로 만든 것에 대한 대가로 열기를 맞게 하신다(30).

왕과 그의 신하들과 온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심판의 파국을 맞게 되었다.

결론

성경이 이 시간까지 보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에 대한 증거이다. 어떤 문서도 이런 적이 없다.

이제 그 성경은 전 세계의 6,0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을.

웨스트민스터, 런던 신앙고백,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그리스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해 즉시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독특하신 섭리와 돌보심으로 시대를 통해 순수하게 보존되었다.

벧전1:24-25

존 위클리프와 윌리엄 틴데일(W. Tyndale) 등이 금서였던 성경을 번역하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죽어갔지만, 성경은 마침내 백성들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 최고 석학인 에라스무스를 사용해서 올바른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을 편집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천주교의 성경 금지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바른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고자 평생토록 수고하였습니다.

나는 매우 연약한 여인이라도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스스로 읽고 깨닫기를 바라며 ... 그런 말씀들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뿐만 아니라 터키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나는 또한 쟁기질하는 소년이 쟁기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옷을 짜는 사람이 옷 짜는 기계소리에 맞추어 이 말씀들을 흥얼거리며, 여행하는 사람이 이 말씀들을 통해 여행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란다 ... 우리는 다른 공부를 한 것으로 인해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올 때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으셨다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 주며, 그분이 바로 우리 옆에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Famine in the Lord』, Norman Ward, p.38).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을 마련한 틴데일은 천주교 신학자가 “성경이란 필요 없소.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천주교의 우민정책에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오.

영어 성경 번역을 위해 평생을 바친 틴데일은 화형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로마 교회의 절대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왕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이루어져 하나님께서는 영국 왕 제임스 1세로 하여금 최고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학자들을 수십 명 동원하게 하여 카톨릭 세력에 맞설 영어성경을 출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신적 권위를 인정받아 ‘권위역’(Authorized version) 이라고도 불립니다. 400년 동안 개정 없이 이어온 이 성경은 많은 공격을 받아왔지만 오늘날까지 미국 등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